

< B r i e f

Report >

##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 무선반응과 인상관리의 탐지

홍 상 황<sup>†</sup>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는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의 비일관성척도와 두 가지 인상관리 지표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관이 높은 문항쌍을 찾아내고 문항의 위치와 의미를 고려하여 8개의 문항쌍으로 이루어진 비일관성척도를 구성하고, 자료를 단계적 판별분석하여 부정적 인상과 긍정적 인상을 시도한 반응을 찾아내기 위한 두 가지 지표를 도출하였다. 부정적 인상지표는 자기중심성(BC), 대인적 비수용성(PD2) 등 2개 척도, 긍정적 인상지표는 내담(DE), 자기희생(LM), 공격성(PD3), 사회적 인정욕구(PD4) 등 4개 척도가 포함된 판별함수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척도들을 포함하는 판별함수의 전체 분류정확률은 98.2%와 80.3%였다. 그리고 비일관성척도와 부정적, 긍정적 인상 지표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학생과 성인 표준표본에 적용하여 기술통계치를 계산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문제검사, 반응태세, 무선반응,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 상 황 / 진주교육대학 교육학과 /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FAX : 055-740-1290 / E-mail : shhong@cue.ac.kr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김영환 등, 2002)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문제를 밝히고, 성격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Horowitz, Rosenberg, Baer, Ureño 및 Villaseñor (1988)는 심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면접장면을 녹화하여 대인관계와 관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선정하여 대인관계문제검사(IIP)를 개발하였는데, KIIP는 이 검사의 문항에서 이론적, 경험적으로 도출한 두 가지 검사인 원형척도(IIP Circumplex Scales, IIP-C; Alden, Wiggins, & Pincus, 1990)와 성격장애척도(IIP Personality Disorder Scales, IIP-PD; Pilkonis, Kim, Proietti, & Barkham, 1996)로 구성되어 있다.

원형척도는 대인관계행동을 기술하는 16가지 변인들을 묶어서 8분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변인 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대인관계 원의 중심에서 개인의 위치 또는 각도와 벡터길이(vector length)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징적인 대인관계적 문제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Pincus, 1994), 성격장애척도는 여러 범주의 성격장애를 빠른 시간 내에 선별하고, 특히 성격장애군 C와 다른 환자들을 변별하는데 유용하다(Pilkonis et al., 1996). 또한 이 두 척도는 애착유형과 타인지각에 따른 대인관계문제(Bartholomew & Horowitz, 1991; Horowitz & Malle, 1993; 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 대인관계문제 유형에 따른 상이한 치료방법의 적용과 그 결과를 밝히고, 우울이나 사회적 불안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된 대인관계문제 유형(Alden & Phillips, 1990; Gurtman, 1993, 1994; Wiggins & Pincus, 1989), 성격장애환자의

특징적인 대인관계문제(Pincus & Wiggins, 1990; Soldz, Budman, Demby, & Merry, 1993), 비임상 표집에서의 성격장애선별(Scarpa, Luscher, Smalley, Pilkonis, Kim, & Williams, 1999), 성격장애를 전형하는데 있어서 척도의 진단효율성과 수렴조작적 특징(Stern, Kim, Trull, Scarpa, & Pilkonis, 2000) 등을 밝히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KIIP는 대인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성격장애를 전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그런데 KIIP는 인벤토리형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반응의 편파나 왜곡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척도가 없다는 측면에서 활용상의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KIIP와 같은 인벤토리형 검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검사자가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수검자의 주관적 판단과 자기보고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검자가 의도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검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인벤토리형 검사이든 검사결과가 수검자의 심리상태, 성격특성 및 행동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예언해 주느냐 하는 것은 수검자의 주관적 판단의 정확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반응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성격검사의 타당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 검사를 받는 모든 수검자에게 진실되고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검사결과 해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수검자의 반응태세와 같은 수검태도이다. 특히 심리검사의 결과가 중요한 정보원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이득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사장면, 법정이나 교도소와 같은 분류장면 및 비자발적 입원이 많은 정신의학적 입상장면에서는 반응태세가 작용하여 검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Rogers, Swell, Morey, & Ustad, 1996). 특히 KIIP의 경우 개별 검사문항이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어서 안면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수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Greene(1997)은 반응의 완결성(completeness), 비일관성, 정확성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 객관적 성격검사에 대한 반응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완결성이란 누락된 문항이 없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응답 문항이 많으면 프로파일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KIIP는 6문항 이상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 그 프로파일을 해석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반응의 비일관성이란 문항에 대한 반응이 무선적이거나 문항내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반응패턴을 보일 경우 신뢰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이러한 반응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MMPI는 16개의 동일한 중복문항을 통해 계산하는 검사-재검사이수(Test-Retest Index, TR; Dahlstrom, Welsh & Dahlstrom, 1972)와 심리적으로 상반되는 12쌍의 문항을 중복시켜 계산하는 부주의지수(Carelessness Scale, CA; Greene, 1978), PAI는 의미적으로 동일하거나 상반되는 10개의 문항쌍으로 구성된 비일관성척도(ICN)를 사용하여 비일관성을 측정하고 있다.

반응의 정확성이란 문항내용에 근거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방어가 작용하여 과소보고하거나 과장해서 보고하는 편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소보고나 과장보고하려는 두 가지 경향은 하나의 연속선에서 양극단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탐지하기 위해 MMPI에는 모호문항과 명백문항(Wiener, 1948),  $D_i$ 척도

(Gough, 1954) 및 F-K지수(Gough, 1950) 등이 있고 PAI에는 긍정적 인상척도(PIM)와 부정적 인상척도(NIM)를 상정하고 있다.

이처럼 반응태세가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심리검사 결과를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있는 임상심리학적 평가에서는 반응태세가 수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KIIP를 연구와 여러 평가 장면에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응의 비일관성과 부정적, 긍정적 인상 반응을 찾아내기 위한 척도와 그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방 법

### 연구대상

J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4가지 반응태세 지시문을 사용하여 KIIP를 실시하였다. 지시문은 표준  $n=167$ , 무선반응( $n=130$ ), 부정적 인상( $n=168$ ) 및 긍정적 인상( $n=185$ ) 지시문이었다. 검사를 실시한 후 이중으로 응답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6문항 이상인 자료를 제외한 표준지시와 3가지 반응태세(무선반응,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지시조건인 수검자 수는 각각 153명(연령  $M=21.65$ ,  $SD=3.03$ , 여학생비율 56.2%), 127명(연령  $M=21.35$ ,  $SD=2.65$ , 여학생비율 88.0%), 163명(연령  $M=20.86$ ,  $SD=2.49$ , 여학생비율 74.8%), 180명(연령  $M=20.76$ ,  $SD=1.47$ , 여학생비율 75.9%), 총 623명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구성한 비일관성척도와 부정적, 긍정적 인상관리 지표의 타당성을 알아보고 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해 김영환 등(2002)이 수집한 대학생  $N=1,460$ 과 성인( $N=$

1,474) 표준화표본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도구

### KIIP

김영환 등(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KIIP)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대인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밝히기 위한 통제지배(PA), 자기중심성(BC), 냉담(DE), 사회적 억제(EG), 비주장성(HI), 과순응성(JK), 자기 희생(LM), 과관여(NO) 등, 8개의 원형척도(KIIP-C)와 성격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대인적 과민성(PD1), 대인적 비수용성(PD2), 공격성(PD3), 사회적 인정욕구(PD4), 사회성부족(PD5) 등, 5개의 성격장애척도(KIIP-PD)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KIIP의 비일관성척도와 인상관리지표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체 99개 문항과 총 13개 척도점수를 사용하였다. KIIP-C와 KIIP-PD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69~.93, .62~.8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61~.84, .62~.82의 범위로 양호하였다.

### 지시문

반응태세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사용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지시문 - “이 검사지에는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대답을 하나 골라 주십시오.” (2) 긍정적 인상 지시문 - “각각의 문항을 자세히 읽으시고 현재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태도, 신념에 근거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즉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3) 부정적 인상 지시문 - “각각의 문항을 자세히 읽으시고 현재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태도, 신념에 근거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신을 나쁘게 보이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정신병 환자처럼 가장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즉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4) 무선반응 지시문 조건에서는 학생들에게 검사지를 주지 않고 답지만을 준 뒤 일정한 규칙에 따르거나 한 가지 수준에 고정시켜 반응하지 말고 무선적(비체계적)으로 반응하라고 지시하였다.

## 자료처리

### 비일관성척도

검사를 구성할 때 반응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체 문항에 걸쳐 의미가 유사한 문항이나 상반된 문항을 중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KIIP와 같이 이미 표준화된 검사에서는 구성된 검사문항 중에서 이론적으로 의미가 유사하거나 상반된 문항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항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계수가 높은 문항쌍을 찾아내고 문항의 위치를 검토하여 비일관성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 부정적 인상과 긍정적 인상 지표

KIIP 99개 문항 중 52문항은 “~하기 어렵다”, 47문항은 “지나치게 ~하려고 한다” 형식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떤 한 문항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하는 방식으로 시인하면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되고 그 문항을 역채점하게 되면 반대로 긍정적 인상을 주게 되어 있다. 예컨대,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심한다”와 같은 부정

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하면 부정적 인상,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면 긍정적 인상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문항 수준에서 이러한 인상관리시도를 탐지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긍정적 인상관리 시도를 찾아내기 위해 총 13개 척도점수를 단계적 판별분석(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하여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분석표본과 검증표본으로 분할하고, 먼저 분석표본에서 판별함수를 도출하여 그 분류정확률과 분할점수를 계산하고 분석표본에서 도출한 판별함수를 검증표본에 적용하여 분류정확률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 결 과

### 비일관성척도

전체 99개 문항간의 상관을 구하여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쌍을 찾아내었다. 비일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항쌍이 전체 문항에 골고루 분산되어(dispersion) 있어야 효과적이므로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쌍 중에서 인접해 있는 문항쌍을 제외하고 문항의 위치와 의미를 고려하여 총 8개 문항쌍을 도출하였다(표 1).

이렇게 구성한 비일관성척도는 8개 문항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척도의 점수는 각각의 문항쌍 별로 두 문항에 대해 평정한 값을 빼서 그 절대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각 문항을

표 1. 비일관성척도 문항쌍과 문항쌍의 상관계수

비일관성척도 문항	r
2. 다른 사람에게 “싫어요” 또는 “안돼요”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46
50.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	
3. 모임이나 회식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72
98.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47
43.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8.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50
41. 내 감정을 털어놓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44.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49
88.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46.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50
90.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62. 늘 주목받고 싶어한다.	.47
97. 너무 존경받고 싶어한다.	
72. 너무 잘 속는 편이다.	.45
85.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0~4점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0~32점 범위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서는 1~14점 범위였다. 그리고 비일관성척도가 타당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지시문 조건과 무선반응 지시문 조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준지시문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한 표본( $M=5.34$ ,  $SD=2.33$ , 범위 1-14)과 대학생 규준표본( $M=5.84$ ,  $SD=2.50$ , 범위 0-18)과 성인 규준표본( $M=5.97$ ,  $SD=2.75$ , 범위 0-20) 등의 3 표본에서 계산한 비일관성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서로 비슷하지만, 무선반응지시문 조건( $M=11.12$ ,  $SD=3.48$ , 범위 4-20)의 평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무선반응 지시문 조건의 평균은 표준지시문을 사용한 3표본의 평균에서 2표준편차 이상 벗어나 있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비일관성척도의 잠정적 변별력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일관성척도의 해석을 용이하게 위해 대학생과 성인 표준화표본의 자료를 활용하여 T점수와 백분위를 계산하여 부록 1에 제시하였다. T점수는 대학생과 성인 규준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해서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환산하였다.

### 부정적 인상 지표

부정적 인상을 시도한 반응을 찾아내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표준지시문과 부정적 인상 지시문의 분석표본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준지시문과 부정적 인상 지시문 조건에서 실시한 13개 척도점수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판별분석한 결과 2개의 척도가 도출되었다(표 2). 표 2에 따르면 표준과 부정적 인상 지시집단을 판별하는데 기여하는 척도는 자기중심성(BC)과 대인적 비수용성(PD2) 등 2개 척도였고 판별함수를 도출한 분석표본의 분류정확률은 표 3과

표 2. 부정적 인상의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예언변인	SCDFC	CDFC	Wilks 랏다값	F
BC	.540	.058	.116	1192.76 **
PD2	.501	.056	.109	637.87 **
(상수)		-8.367		
아이겐값	8.178			
정준상관	.944			
Wilks 랏다값	.109			
$\chi^2$	345.819			
df	2			

주. SCDFC: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CDFC: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  $p < .01$ .

같다. 판별함수의 정준 상관계수는 .944, Wilks 랏다값은 .109(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전체 분류정확률은 98.8%였다.

판별함수를 타당화하기 위해 표 2의 정준 판별함수에 따라 계산되어진 집단 중심치를 사용해서 표준지시에 따른 반응과 부정적 인상을 시도한 반응을 판별하기 위한 최적의 분류기준점수를 계산하였다. 분류기준점수는 집단의 사례수가 다를 때 계산하는 방법(송인섭, 1996, p. 377)을 적용해서 계산하였고<sup>1)</sup>, 이를 검증표본에 적용한 결과 전체 분류정확률은 97.5%였다(표 3). 이를 분석표본과 비교했을 때 전체 분류정확률

1) 표준지시문 집단과 부정적 인상 지시문 집단의 중심치는 각각 -.2932, 2.754이고, 이를 분류기준점수 계산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그 결과 판별점수가 분류기준점수인 -.1784보다 낮으면 표준지시에 따른 반응이고 높으면 부정적 인상을 시도한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3. 표준지시와 부정적 인상 반응의 분류예언율

실제 집단	예언된 집단		n
	표준지시	부정적 인상	
<b>분석표본</b>			
표준지시	76(98.7)	1( 1.3)	77
부정적 인상	1( 1.2)	81(98.8)	82
<b>검증표본</b>			
표준지시	75(98.7)	1( 1.3)	76
부정적 인상	3( 3.7)	78(96.3)	81

주. ( ) 안은 백분율. 전체 분류정확률 : 분석표본 98.8% 검증표본 97.5%.

은 1.2% 낮아졌고 표준지시 반응의 적중률은 변화가 없으나 부정적 인상 관리를 시도한 반응의 적중률은 2.6% 낮아졌다. 그리고 분석표본과 검증표본의 전체 적중률은 98.2%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정적 인상지표가 매우 타당하고 이를 통해 부정적 인상관리 반응을 매우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정적 인상 판별함수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지시문을 사용해서 수집한 대학생과 성인 기준표본 및 본 연구에서 부정적 인상을 지시한 대학생들의 자료에 판별함수를 적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M=-2.68, SD=1.11$ )과 성인( $M=-2.66, SD=1.12$ ) 기준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매우 유사하지만, 부정적 인상 지시 집단( $M=2.56, SD=1.43$ )의 평균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부정적 인상을 시도할 경우 부정적 인상지표의 평균이 표준지시문을 사용했을 때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정적 인상지표를 통해서 부정적 인상을 잘 찾아낼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부정적 인상 판별함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학생과 성인 기준표본에 적용하여 판별점수 값에 상응하는 T점수를 산출한 것이 부록 2이다. T점수는 대학생과 성인 기준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해서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환산하였다.

### 긍정적 인상 지표

긍정적 인상을 시도한 반응을 찾아내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분석표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준지시문과 긍정적 인상 지시문 조건에서 실시한 13개 척도의 점수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판별분석한 결과 4개의 척도가 도출되었다(표 4). 표 4에 따르면 표준지시와 긍정적 인상 지시집단을 판별하는데 기여하는 척도는 냉담(DE), 자기희생(LM), 공격성(PD3), 사회적 인정욕구(PD4) 등 4개 척도였고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673, Wilks 람다값은 .548 ( $p<.01$ )로 유의미하였고 전체 분류정확률은 82.1%였다.

판별함수를 타당화하기 위해 표 4의 정준 판별함수에 따라 계산되어진 집단 중심치를 사용하여 표준지시에 따른 반응과 긍정적 인상관리 반응을 판별하기 위한 최적의 분류기준점수를 계산하였다. 분류기준점수는 집단의 사례수가 다를 때 계산하는 방법(송인섭, 1996, p. 377)을 적용해서 계산하였고<sup>2)</sup>, 이를 검증표본에 적용한 결과 전체 분류정확률은 78.4%였다(표 5). 그리고

2) 표준지시문 집단과 긍정적 인상 지시문 집단의 중심치는 각각 .977, -.836이고, 이를 분류기준점수 계산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그 결과 판별점수가 분류기준점수인 .1411보다 높으면 표준지시에 따른 반응이고 낮으면 긍정적 인상관리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4. 판별분석에서 도출된 긍정적 인상반응의 예언변인

예언변인	SCDFC	CDFC	Wilks 람다값	F
DE	.636	.073	.617	102.227 **
LM	-.817	-.072	.588	57.492 **
PD3	.309	.038	.566	41.708 **
PD4	.609	.059	.548	33.471 **
(상수)		-3.828		
아이겐값	.826			
정준상관	.673			
Wilks 람다값	.548			
$\chi^2$	98.186 **			
df	4			

주. SCDFC: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CDFC: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

\*\*  $p < .01$ .

검증표본의 결과를 분석표본과 비교했을 때 전체 분류정확률은 3.6%, 표준과 긍정적 인상 지시 조건의 적중률은 약 4~5% 낮아졌다. 그리고 분석표본과 검증표본의 전체 적중률은 80.3%이었다.

표 5. 표준지시와 긍정적 인상 반응의 분류예언을

실제집단	예언된 집단		n
	표준지시	긍정적 인상	
분석표본			
표준지시	64(83.1)	13(16.9)	77
긍정적 인상	17(18.9)	73(81.1)	90
검증표본			
표준지시	60(78.9)	16(21.1)	76
긍정적 인상	20(22.2)	70(77.8)	90

주. ( ) 안은 백분율. 전체 분류정확률: 분석표본 82.1% 검증표본 78.4%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긍정적 인상 판별함수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지시문을 사용하여 수집한 대학생과 성인 규준표본 및 본 연구에서 긍정적 인상을 지시하여 수집한 대학생자료에 판별함수를 적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 $M=1.09$ ,  $SD=1.08$ )과 성인( $M=1.08$ ,  $SD=1.05$ ) 규준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매우 유사하고 긍정적 인상 지시 집단( $M=-.76$ ,  $SD=1.07$ )의 평균은 두 규준표본의 평균에서 1.5표준편차 이상 벗어나 있었다. 이처럼 긍정적 인상을 시도했을 경우 긍정적 인상지표의 평균이 표준지시문을 사용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 인상지표의 잠정적 유용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 인상 판별함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학생과 성인 규준표본에 적용하여 판별점수 값에 상응하는 T점수를 산출한 것이 부록 3이다. T점수는 대학생과 성인 규준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환산하였다.



## 논 의

KIIP와 같은 여러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를 해석할 때는 먼저 수검자의 무선적 반응 경향, 부정적, 긍정적 인상관리 시도와 같은 반응태세를 검토하여 검사결과의 타당성을 결정한 후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KIIP는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반응태세를 찾아내기 위한 척도나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활용하는데 다소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수검자의 무선적 반응을 찾아내기 위한 비밀관성척도와 인상관리 반응을 탐지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선적 반응경향을 찾아내기 위해 99개 문항간의 상관을 구하여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을 찾아내었다. 그 결과 124개의 문항쌍의 상관계수가 .40이상이었으나 문항의 의미와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즉 수검자가 비밀관성있게 반응하는 경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항쌍이 전체 99개 문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하고 문항의 의미가 확연하게 상반되거나 완전히 유사할수록 반응의 비밀관성을 찾아내기 쉽다고 생각되어 8개 문항쌍, 16개 문항으로 비밀관성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비밀관성척도를 KIIP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대학생과 성인 표준표본에 적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무선반응 지시문을 사용한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즉 무선반응 지시조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대학생과 성인 표준표본의 평균에서 2표준편차 이상 벗어나 있었다. 둘째, 부정적, 긍정적 인상을 시도하는 반응을 찾아내기 위해 13개 척도점수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판별분석 하였다. 그 결과 부

정적 인상 탐지지표는 자기중심성(BC)과 대인적 비수용성(PD2) 등 2개 척도, 긍정적 인상반응 탐지지표는 냉담(DE), 자기희생(LM), 공격성(PD3), 사회적 인정욕구(PD4) 등 4개 척도가 포함된 판별함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척도들을 포함하는 판별함수의 전체 분류정확률은 각각 98.2%, 80.3%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두 판별함수를 KIIP를 표준화하는데 사용한 대학생과 성인 표준표본 및 두 가지 인상지시집단에 적용하여 판별점수와 그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인상지표는 전체 분류정확률이 98.2%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표를 부정적 인상을 지시한 대학생자료에 적용하여 계산한 평균이 표준지시문을 사용한 두 표준표본의 평균에서 2 표준편차 이상 벗어나 있었다. 이처럼 부정적 인상을 시도할 경우 부정적 인상지표의 평균이 표준지시문을 사용했을 보다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것은 부정적 인상지표를 통해서 부정적 인상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정적 인상지표는 매우 타당하고 정확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긍정적 인상지표는 부정적 인상지표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제한점이 있다. 첫째, 긍정적 인상지표는 전체 분류정확률이 80.3%로 부정적 인상지표의 전체 분류정확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떤 수검자의 반응이 표준지시에 따른 반응인지 아니면 긍정적 인상관리를 시도하려는 반응인지를 우연에 의해 맞출 확률은 50%이고 본 연구의 80.3%는 우연적 분류정확률보다 높지만 이 지표를 적용했을 때 5번 중 한번 정도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 인상지표를 적용했을 때 부정적 인상시도

집단의 평균은 두 기준표본에서 2표준편차를 훨씬 벗어났지만, 긍정적 인상지표를 적용했을 때 긍정적 인상을 지시한 대학생집단의 평균은 표준지시문을 사용한 두 기준표본에서 1.5표준편차 벗어나 있었다.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점수가 1.5표준편차보다 2표준편차 벗어나 있다면 더 극단적인 값이고 그러한 값을 찾아낼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 인상지표는 부정적 인상지표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일관성척도와 부정적 인상지표는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긍정적 인상지표를 사용할 때는 다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한 수검자가 지나치게 부정적 인상을 시도한다면 긍정적 인상도 동시에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상관리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인상지표를 먼저 고려하고 긍정적 인상지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거나 부정적 인상지표의 점수에 따라 긍정적 인상관리 시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KIIP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지표를 도출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집단이나 검사결과에 따라 이차적 보상이 주어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장면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두 가지 지표의 효율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 391-411.
- 오택섭 (1996).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 SAS · SPSS/PC+. 서울: 나남출판사.
- Alden, L. E., & Phillips, N. (1990).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99-513.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Dahlstrom, W. G., Welsh, G. S., & Dahlstrom, W. E. (1972). *An MMPI handbook Vol. I: Clinical interpret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ough, H. G. (1950). The F minus K dissimulation index for the MMPI.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4*, 408-413.
- Gough, H. G. (1954). Some common misconceptions about neuroticism.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8*, 287-292.
- Greene, R. L. (1978). An empirically derived MMPI careless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407-410.
- Greene, R. L. (1997). Assessment of malingering and defensiveness by multiscale personality inventories. In R. Rogers (Ed.), *Clinical assessment of malingering and deception* (2nd ed., pp. 169-207).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Gurtman, M. B. (1993). Constructing personality tests to meet a structural criterion: Application of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Journal of Personality,*

- 61, 237-261.
- Gurtman, M. B. (1994). The circumplex as a tool for studying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 A methodological primer. In S. Strack & M. Lorr (Eds.), *Differentiating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 (pp. 243-263). New York: Springer.
- Horowitz, L. M., & Malle, B. F. (1993). Fuzzy concepts in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Research*, 3, 131-148.
- Horowitz, L. M.,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2000).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manual*.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Horowitz, L. M., Rosenbe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49-560.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Pilkonis, P. A., Kim, Y., Proietti, J. M., & Barkham, M. (1996).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developed from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0, 355-369.
- Pincus, A. L. & Wiggins, J. S. (1990).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4, 342-452.
- Pincus, A. L. (1994).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and the interpersonal theory: Perspectives on personality and its pathology. In S. Strack & M. Lorr (Eds.), *Differentiating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 (pp. 114-136). New York: Springer.
- Rogers, R., Swell, K. W., Morey, L. C., & Ustad, K. L. (1996). Detection of feigned mental disorders on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A discriminant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7, 629-640.
- Scarpa, A., Luscher, K. A., Smalley, M. S., Pilkonis, P. A., Kim, Y., & Williams, W. C. (1999). Screening for personality disorders in non-clinical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 345-360.
- Soldz, S., Budman, S., Demby, A., & Merry. (1995). A short form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Assessment*, 2, 53-63.
- Stern, B. L., Kim, Y., Trull, T. J., Scarpa, A., & Pilkonis, P. (2000).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scales: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nonclinical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4, 459-471.
- Wiener, D. N. (1948). Subtle and obvious keys for the MMPI.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2, 164-170.
- Wiggins, J. S., & Pincus, A. L. (1989).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and dimension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305-316.

원 고 접 수 일 : 2003. 6. 1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18

게 재 결 정 일 : 2003. 10. 15

K C I

<Brief Report>

## Detection of random response and impression management in the KIIP

Sang-Hwang Hong

Departmen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inconsistency scale and two impression management index of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KIIP). First, pairs of items with high correlation were identified and as a result, inconsistency scale, which consisted of eight pairs of items, was developed by considering location and meaning of items. Second, two impression management index were derived by employing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Index of negative and positive impression management were composed of 2 scales (BC, PD2) and 4 scales (DE, LM, PD3, PD4), respectively. Overall classification rates of these two discriminant functions were 98.2%, 80.3%, respectively. Third,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ir norms of inconsistency scale and two impression management indices of university and adult normative samples were presented in order to make interpretation of inconsistency scale and impression index easier. Finally,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words : KIIP, response set, random response, negative impression, positive impression*

부록 1. 비일관성척도의 기준

원점수	대학생		성인		원점수
	T점수	백분위	T점수	백분위	
0	27	3	28	6	0
1	31	2.2	32	2.6	1
2	35	6.7	36	6.9	2
3	39	16.6	39	16.8	3
4	43	31.2	43	31.3	4
5	47	47.9	46	47.4	5
6	51	64.5	50	62.2	6
7	55	77.3	54	73.4	7
8	59	86.0	57	83.4	8
9	63	92.3	61	88.8	9
10	67	96.2	65	93.5	10
11	71	97.8	68	95.9	11
12	75	98.7	72	97.8	12
13	79	99.2	76	99.1	13
14	83	99.5	79	99.5	14
15	87		83	99.7	15
16	91		86	99.7	16
17	95	99.9	90	99.8	17
18	99	100	94		18
19	103		97	99.9	19
20	107		101	100	20

주. 대학생 N=1,460, 성인 N=1,474

부록 2. 부정적 인상 판별점수의 T점수

판별점수	T점수		판별점수	T점수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5.00	29	29	0.25	76	76
-4.75	31	31	0.50	79	78
-4.50	34	34	0.75	81	80
-4.25	36	36	1.00	83	83
-4.00	38	38	1.25	85	85
-3.75	40	40	1.50	88	87
-3.50	43	43	1.75	90	89
-3.25	45	45	2.00	92	92
-3.00	47	47	2.25	94	94
-2.75	49	49	2.50	97	96
-2.50	52	51	2.75	99	98
-2.25	54	54	3.00	101	101
-2.00	56	56	3.25	103	103
-1.75	58	58	3.50	106	105
-1.50	61	60	3.75	108	107
-1.25	63	63	4.00	110	109
-1.00	65	65	4.25	112	112
-0.75	67	67	4.50	115	114
-0.50	70	69	4.75	117	116
-0.25	72	72	5.00	119	118
0.00	74	74			

주. 대학생 N=1,460, 성인 N=1,474

부록 3. 긍정적 인상 판별점수의 T점수

판별 점수	T점수		판별 점수	T점수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4.00	3	2	1.25	51	52
-3.75	5	4	1.50	54	54
-3.50	8	6	1.75	56	56
-3.25	10	9	2.00	58	59
-3.00	12	11	2.25	61	61
-2.75	14	14	2.50	63	64
-2.50	17	16	2.75	65	66
-2.25	19	18	3.00	68	68
-2.00	21	21	3.25	70	71
-1.75	24	23	3.50	72	73
-1.50	26	25	3.75	75	75
-1.25	28	28	4.00	77	78
-1.00	31	30	4.25	79	80
-0.75	33	33	4.50	82	83
-0.50	35	35	4.75	84	85
-0.25	38	37	5.00	86	87
0.00	40	40	5.25	89	90
0.25	42	42	5.50	91	92
0.50	45	44	5.75	93	94
0.75	47	47	6.00	95	97
1.00	49	49			

주. 대학생 N=1,460, 성인 N=1,474